

“보증금 70억 순천시가 책임져야”

시공업체 부도... “市 관리 잘못으로 폐일 위기”

중앙동 지하상가 상인들 지급요청 감사청구

순천시 중앙동 지하상가 임차인들이 전납도에 ‘순천시 중앙지하상가 임대보증금 지급요청’ 감사청구서를 요구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순천시 중앙지하상가 임차인에 따르면 지난 20년전 순천시의 판단 착오로 70여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빼이게 될 위기에 처했다. 시공업체인 (주)동운개발이 지난 2005년 부도처리됐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인들은 100여 명에 이른다. 임차인들은 점포의 크기에 따라서 보증금의 액수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여만원까지 총 70

여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영업을 해왔다.

순천시와 (주)동운개발의 협약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순천시 중앙지하상가에 대해 20년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주)동운개발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 임대료를 20년간 적립해 계약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20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이었다.

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 시행자가 점포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점용기간 완료후 제3자(임차인)에게 지급할 임대환보 보증

금을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예치해야 한다.

또 전액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장기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정기예금)을 시장과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이후로 이자율이 인하될 경우 임대환보 보증금은 증액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약서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서류상으로는 (주)동운개발측이 순천시에 20년간 현금으로 임대환보 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순천시 금고에는 이러한 예치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주)동운이 현금이 아닌 35억여원의 약속어음을 순천시에 발행했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주)동운개발측의 예치행위를 인정할 것이다.

순천시는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약속어음을 수령했을 뿐 별

다른 예치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순천지하상가 임차인 대책위원회 김동민 사무장은 “임차인들은 해당 건설업체와 계약을 할 당시 점포가 시 소유로 돼 있어 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임대한 만큼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운 회장은 “순천시가 당시 계약서대로 이행했다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시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순천시 임종필 건축과장은 “임차인들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의 도의적 책임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사랑의 여름 김치 나누기
보성군 특산물 여성자원봉사회 회원들이 최근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전달할 열무김치를 담고 있다. 보성군 각 면 여성자원봉사회는 이달 초부터 ‘사랑의 여름 김치 나누기’ 행복리레이 행사를 펼쳐 훈훈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보성군 제공)

광양만권 산단 입주 기업 쇄도

최근 5개사 올촌1산단 입주...지역경제 활력

광양만권 산단에 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하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GFEZ·청장 최중만)은 최근 투자유치협의 회를 개최해 SPP 올촌에너지·정도이앤지(주) 등 5개사에 대해 올촌1산단 입주를 승인했다.

이번 투자유치협의의 합의결과 총 1만 7천여㎡의 부지를 5개사에 나눠주기로 했다. 올촌1산단은 1만 7천여㎡의 부지에 총 4910억원·고용창출 3400명이 예상됨에 따라 광양만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5개 기업 입주에 따라 기존 55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60개 기업이 입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GFEZ는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부족한 분양부지 상황을 감안해

5개 입주회망 기업이 신청한 81만 9000㎡의 면적 가운데 69만2000㎡만 승인했다.

또 잔여면적 등 45만9000㎡은 외국 자본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 신기술·신소재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FEZ는 유럽·중국·일본 등 외국계 물류업체·친환경 설치업체 등과 현재 상담을 진행중에 있다. 이와 같이 광양만권 산단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주변에 189km(5700만평)의 광활한 산업단지 부지와 세계 13위 물동량 처리의 광양항이 있는 등 입지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광양만권에는 조강생산능력 세계 1위의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56%를 생산하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기업유치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말 연산 200만t의 광양제철소 후관공장이 준공되는 것도 큰 매력이다. 이와 함께 2012 여수 세계박람회·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면 광양만권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져 많은 기업의 유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FEZ가 착공했거나 착공예정인 산단은 ▲세종 일반산업단지(1.97km) ▲황금 산업단지(2.59km) ▲올촌 제2산단(8.9km) ▲하동 갈사면 조선산업단지(5.61km) ▲대송 산업단지 등이

/동부취재본부=김청수기자 choun47@

구례군-지리산 가족호텔 업무협약

구례군은 지난 26일 지리산 가족호텔과 구례 생명체육학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수확여행 및 체험학습 협력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서 군과 가족호텔은 구례 생명체육학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도 함께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지역내 우수 관광자원과 차별화된 관광정보 등을 상호 교류하고,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전국 제일의 관광광복소구례만들기에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산동 원천지구에 위치한 지리산가



가족호텔은 134실의 객실과 로비 라운지, 카페테리아를 비롯해 뛰어난 수질의 온천사우나를 갖춘 전천후 휴양 시설이다. 특히 대형 연회장과 회의실, 실내 수영장 등 최상의 여가문화 공간과 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세미나와 수확여행지로 알려져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통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발생한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광양항 동측 부두 연결도로가 27일 개통됐다.

광양시는 국비 214억 원 등 총 395억원을 투입해 8년 만에 총연장 2.9km·폭 50m(8차선)의 광양항 동측 부두 연결도로를 완공했다.

시는 도로 우측에 천연자재인 점토블록을 사용한 폭 4.0m의 인도를, 도로 양측에 폭 2.5m의 자연거도를 각각 개설해, 쾌적한 보행 및 레포츠

환경을 갖췄다.

또 6만4000여 그루의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가로등도 태양광 전지판을 활용한 LED 조명을 적용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연결도로 준공에 따라 길호대교와 인접한 광양항(동측부두)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연간 29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도심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백운산 휴양림서 청소년 영화학교

전남영상위원회 내달 2일부터 5일간

광양에서 전남 동부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 영화교육이 실시된다.

(사)전남영상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4박5일동안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전남 영화학교’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영화학교는 영상에 관심이 있는 여·수·소년·광양시의 고등학생 30여명이 참여해 촬영·편집·시나리오 등을 교육하고 직접 영화를 제작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위주의 교육을 위해 각 조별로 실습조교 2명을 배치, 심도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다큐멘터리 ‘동백아가씨’를 연출한 박정숙 감독이 강의를

진행하고, 영화 ‘하모니’의 강대규 감독이 특별 강의를 맡아 영화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결과물은 마지막 날인 6일 작품 시사회를 통해 선보이며, DVD로 제작해 참여 학생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전남영상위 관계자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영상에 관심은 많지만, 전문적으로 영상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흔치 않다”며 “지역출신의 감독을 섭외해 영상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더 불어 안겨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컨테이너부두공단

경영본부장 김종진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사장 이장호)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김종진(55) 전 마케팅팀장을 신임 경영본부장에 임명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GG경매 컨설팅(주)

공인중개사: 김영희
☎ 062-364-8700
H.P.010-4608-3700

▶아파트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	최저가	비고
전남	신안군 우치리	112/34	29㎡	194천	
	신안군 남양리	140/45	29㎡	198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75천	
남구	신안군 고암리	105/32	82㎡	597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중구	신안군 고암리	140/45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40/45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191천	
	신안군 고암리	175/58	19㎡	82천	
북구	신안군 고암리	175/58	29㎡	298천	
	신안군 고암리	161/48	29㎡	194천	
	신안군 고암리	109/33	82㎡	597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서구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	최저가	비고
전남	신안군 우치리	112/34	29㎡	194천	
	신안군 남양리	140/45	29㎡	198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75천	
남구	신안군 고암리	105/32	82㎡	597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중구	신안군 고암리	140/45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40/45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191천	
	신안군 고암리	175/58	19㎡	82천	
북구	신안군 고암리	175/58	29㎡	298천	
	신안군 고암리	161/48	29㎡	194천	
	신안군 고암리	109/33	82㎡	597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서구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	최저가	비고
전남	신안군 우치리	112/34	29㎡	194천	
	신안군 남양리	140/45	29㎡	198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75천	
남구	신안군 고암리	105/32	82㎡	597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중구	신안군 고암리	140/45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40/45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191천	
	신안군 고암리	175/58	19㎡	82천	
북구	신안군 고암리	175/58	29㎡	298천	
	신안군 고암리	161/48	29㎡	194천	
	신안군 고암리	109/33	82㎡	597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서구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	최저가	비고
전남	신안군 우치리	112/34	29㎡	194천	
	신안군 남양리	140/45	29㎡	198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75천	
남구	신안군 고암리	105/32	82㎡	597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중구	신안군 고암리	140/45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40/45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191천	
	신안군 고암리	175/58	19㎡	82천	
북구	신안군 고암리	175/58	29㎡	298천	
	신안군 고암리	161/48	29㎡	194천	
	신안군 고암리	109/33	82㎡	597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서구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	최저가	비고
전남	신안군 우치리	112/34	29㎡	194천	
	신안군 남양리	140/45	29㎡	198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75천	
남구	신안군 고암리	105/32	82㎡	597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중구	신안군 고암리	140/45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40/45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191천	
	신안군 고암리	175/58	19㎡	82천	
북구	신안군 고암리	175/58	29㎡	298천	
	신안군 고암리	161/48	29㎡	194천	
	신안군 고암리	109/33	82㎡	597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서구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건평㎡	최저가	비고
전남	신안군 우치리	112/34	29㎡	194천	
	신안군 남양리	140/45	29㎡	198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75천	
남구	신안군 고암리	105/32	82㎡	597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75천	
중구	신안군 고암리	140/45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40/45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12/34	19㎡	191천	
	신안군 고암리	175/58	19㎡	82천	
북구	신안군 고암리	175/58	29㎡	298천	
	신안군 고암리	161/48	29㎡	194천	
	신안군 고암리	109/33	82㎡	597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서구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신안군 고암리	105/32	19㎡	82천	

• 위치: 법원입찰장 건너편 • 권리분석: 현상집사-입찰대행-낙찰(전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일선)-평도(이사)

광천동 e-편한세상

선